

공연예술아카이브 교육 콘텐츠 개발환경 개선 방안 연구

김도연* 국립극장

본 연구는 공연예술아카이브 교육 콘텐츠 개발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영국을 중심으로 무용 아카이브와 교육 콘텐츠 사례를 알아보고, 국내 공연예술아카이브와 비교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공연예술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아카이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수집과 보존보다 활용이 중심이 되는 의식 변화를 바탕으로 교육 콘텐츠 개발 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조직체계,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조사와 연구에 착수하고,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아카이브 소장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단계별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아카이브는 물리적 훼손을 최소화해야 하는 유일본을 다루는 기관이다. 또한 기록 간의 관계, 즉 맥락 정보가 중요하여 기록의 그룹이나 컬렉션 단위로 접근하는데 의미를 두는 아카이브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아키비스트의 적극적인 안내와 도움 없이는 공연예술아카이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렵다. 체계적인 이용 매뉴얼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공연예술아카이브의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저작권 문제이다. 공연 작품의 구성 요소별 법의 적용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기록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고, 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교육 콘텐츠가 개발된다면 공연예술아카이브는 더욱 활성화되고, 공연 예술기록의 가치는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공연예술, 공연예술아카이브, 공연예술기록, 공연예술자료, 무용 아카이브, 무용 기록, 교육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I. 서론

기록학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영국 학자 힐러리 젠킨슨은 '기록'을 업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행정상 또는 업무 집행상의 기록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기록이 보존되는 목적 역시 추후 진행될 업무에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Jenkinson, 1937). 반면 미국의 학자 쉘렌버그는 기록의 가치를 더욱 확장시켰다. 기록이 만들어지는 목적과 부합하는 법률적·재정적·행정적 가치를 1차 가치로 인정하고, 1차 활용이 끝난 후에는 역사 연구와 교육 등에 활용하는 2차 가치로 구분하였다(Schellenberg, 1956). 이러한 쉘렌버그의 가치 평가는 연구목적 등으로 영구보존의 가치가 있는 기록이 바로 아카이브라고 보고, 현용의 가치 외에도 미래의 활용 가치를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김상신, 2016).

기록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주체가 극히 소수였기 때문에 가치 또한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의 기록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생산과 이용이 가능한 존재가 되었고, 법률·재정·행정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연구, 교육을 비롯하여 홍보, 문화예술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과 용도

*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강사

로 활용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도래하면서 정보와 지식이 축적된 기록 저장소 아카이브의 기능과 역할이 우리 사회에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 아카이브는 2000년대에 이르러 설립과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제대로 된 개념과 정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문화예술분야는 빠르게 자료 수집과 생산을 통해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시작하였다. 무형예술인 무용을 비롯해 공연예술분야는 창작부터 실연까지 과정의 기록화를 실연과 동시에 사라지는 무형의 공연예술작품 원형의 보존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였고, 예술 활동의 과정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기록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공연예술기록을 흔적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도 있지만 공연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유형의 자산으로써 증거의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이호신, 2013).

수많은 공공 기관과 지자체들은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왔고, 현재 많은 아카이브 기관들은 축적해온 소장 자료를 온·오프라인 열람을 비롯하여 전시 등의 방법을 통해 자료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축적된 자료량의 보존과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화, DB구축 사업 등에 투입된 예산과 인력에 비해 그 가치는 사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록과 맥락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 디자인과 내용 구성, 콘텐츠 개발과 홍보 마케팅 전략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1차원적인 디지털 자료 업로드와 최소한의 기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서혜경(2010)은 국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을 비롯한 아카이브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카이브가 기관이 가지는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를 바탕으로 전문 아키비스트를 통해 자료를 실제로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애(2014)의 경우에도 현재 많은 아카이브들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홍보 목적으로 소장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국가기록원이나 대통령기록관 외 국립종합박물관의 경우 기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예술분야의 기록의 활용 빈도는 현저히 낮고, 교육 콘텐츠를 찾아보기 힘들다. 박혜영(2017) 또한 기·예능의 전수와 교육을 위해 이루어진 기록화 사업과 아카이브 구축이 문화재청이나 국립무형유산원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와 관련된 결과물을 쉽게 찾아보고 이용하는 것조차 어렵다며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교육 콘텐츠로써 활용은 고사하고 자료에 대한 접근조차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의 연구자가 종사하는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기록이 직·단원에 의해서만 활용되고, 기록 이용의 다수 목적이 개인의 정보 수집이나 홍보 목적인 것은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현실로부터 제기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연예술아카이브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환경 개선을 고무하기 위해 선진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영국의 무용 아카이브와 교육 콘텐츠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공연예술아카이브 유사기관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국의 경우 문화·예술·역사 분야가 일찍이 발달하였고, 기록학 초기 이론 학자 켄킨슨의 나라이며, 다양한 분야의 아카이브 시스템과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본 연구에서 용어 사용은 '아카이브(archives)'의 사전적 의미 중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을 보존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뜻으로 사용하였고, '기록(records)'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형태의 기록들'의 의미를 가진 '자료(materials)'와 혼용하였다. 또한 '교육 콘텐츠'의 경우에는 기관의 소장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교육용 자료, 교육 프로그램 및 시스템 등 지도와 학습을 위한 유·무형의 도구와 방법'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II. 공연예술아카이브와 교육

공연예술교육에 있어 기록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일반적으로 교육에 있어 기록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가공되지 않은(raw) 1차 자료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각자의 방식으로 다양한 해석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역사적 사고력(양호환, 2001) 향상을 이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록을 시대순으로 나열하고, 기록과 기록 간의 관계를 해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과거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현재와 미래를 그리는 과정 속에서 사고력이 향상된다. 역사적 사고력은 연대기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으로 구성 되어 있고 기록은 이를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 도구로 작용하는 것이다(김한중, 이영효, 최상훈, 2005).

공연예술기록 역시 마찬가지로 사고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기록을 통해 창작자의 작품 의도, 즉 예술가의 철학·미학적 가치관을 읽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극, 무용, 음악 등의 각 장르별 극장, 의상, 무대, 장치, 소품 등의 다양한 작품 요소와 관련된 경향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기록과 기록 간의 관계와 맥락을 찾아 새로운 메시지와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공연예술사적 이론 학습을 위한 교육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무형의 공연예술을 유형의 기록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은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 실기 중심의 교육에 벗어난 새로운 접근의 학습 방식을 제공한다. 지식은 학습자에 의해 자주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학교 등 교육 기관들은 다양한 방식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각자의 고유의 방식으로 예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연예술기록은 매체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들 또한 각자만의 방식으로 결합과 해체, 해석과 상상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사진, 영상, 음향, 디자인 등 시청각 자료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쉽게 흥미를 유발하고, 이미지를 통해 빠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오랜 시간 공연예술의 교육 방식은 구전과 이미지를 통해 이루어졌고, 실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무용 등을 포함한 공연예술은 예술적 표현의 학습에 관한 내용 외에도 미적 지각 활동, 문화적·역사적 이해, 무용 철학과 비평 등의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지적이 여전히 존재한다(정은영, 최현주, 2010). 게다가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 단순히 교과서를 통해서만 학습할 수 없게 되었다. 학교나 도서관 등을 통해서도 양질의 공연예술 자료를 접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공연예술기록은 교육적 매체로서의 기능은 더욱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유미희, 2008).

나아가 공연예술기록의 교육적 가치를 활용하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은 공연예술아카이브의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지속적인 기록의 활용을 통한 가치 확산에 있어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오선화, 2017).

교육 콘텐츠를 이용하는 학생과 지도자들로 하여금 기관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홍보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환경을 통해 기관의 콘텐츠를 제공·이용하고, 상호적인 소통과 참여공간으로 새로운 교육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교육 콘텐츠를 이용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소통의 장으로 작용하여 기관의 변화와 발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III. 영국 무용 아카이브의 현황과 교육 콘텐츠 사례

1. 램버트 댄스 컴퍼니의 전시연계해설 및 교육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무용단 램버트 댄스 컴퍼니의 램버트 아카이브는 1982년 영국의 문화유산 복권기금(Heritage Lottery Fund)과 기타 예술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설립되었다. 2014년에 영국 왕립 건

축학회에서도 수상 받은 램버트 댄스 컴퍼니의 현대식 건물의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다. 무용단 운영진과 무용수들의 모든 활동에 대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축적된 기관의 역사의 발자취이자 정체성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진과 무용수들은 그들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위해 아카이브에 자주 방문하여 자료를 이용한다. 그들은 기록을 통해 램버트 댄스 컴퍼니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한다. 과거의 공연 사진, 디자인, 메모, 안무 노트, 의상 등은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키비스트는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질문과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램버트 댄스 컴퍼니는 전시를 통해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 연구자 또는 일반인들에게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장 자료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물리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낮은 자료를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전시 격납장에 위치한 자료뿐만 아니라 일부 자료를 직접 수장고에서 반출하여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용자들은 자료를 감상하면서 전시 해설을 들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아키비스트는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가치를 발굴하고, 그와 관련된 숨은 정보, 맥락 정보를 해설을 통해 전달하게 된다. 이용자들은 가공되지 않은 날 것의 아카이브 자료들과 그것들 간의 관계들을 살펴봄으로써 예술가의 삶과 창작 세계를 상상할 수 있다. 관련된 해설을 들으며 램버트 댄스 컴퍼니의 활동을 중심으로 영국의 현대 무용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대상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하여 해설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관 운영진이나 단원들 외에도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다. 아카이브를 통해 예술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램버트 댄스 컴퍼니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 걸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는 자료 디지털화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0개 이상의 공연 관련 이미지를 온라인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특정 주제나 컬렉션을 선정해서 그것의 맥락에 맞게 자료 목록을 나열해 제공하고 있으며, 안무가, 무대 디자이너, 음향 감독, 무대 감독 등 36인의 목소리로 램버트의 역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구술사 프로젝트 결과물을 인물정보와 함께 공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타임라인 제작, 본관 인터랙티브 지도 구현, 공연 예술인 정보 DB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수집과 보존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이용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또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이용객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아카이브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램버트 댄스 컴퍼니의 활동과 역사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램버트 댄스 컴퍼니의 아카이브가 다채로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전문 아키비스트 1인이라는 점이다. 단기 인턴십을 통해 자료 등록과 정리 업무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자료 관리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운영을 위한 지원금 조달부터 기관의 홍보에 이르기까지 혼자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램버트 아카이브는 대외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전문 인력이 보다 확보된다면 더욱 다양한 컬렉션들을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아카이브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국립무용자료센터 아카이브 이용자 교육과 출판 교류

영국 서리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 내에 위치한 국립 무용 자료센터(The National Resource Centre for Dance)는 1982년 무용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약 60종류 이상의 스페셜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무용 교육, 공연, 극장 활동 등과 관련된 자료뿐만 아니라

동작 분석과 심리 분석, 무용 치료와 관련된 자료들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용학자 루돌프 라반(Rudolf Laban)을 비롯하여 램버트 댄스 컴퍼니, 할리퀸 발레단, 코쿠마 댄스 씨어터, 쇼바나 제야싱 무용단 등과 관련된 자료들이 대표적이다. 센터는 정기적으로 수집과 기증을 통해 자료를 축적해오고 있다.

학생들과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자료들을 자유롭게 센터를 이용 가능하고, 센터는 무용 교육과정과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 센터는 교육과 연구를 위한 지원이 센터의 존재의 이유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카이브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무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카이브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기관이다. 이용 방법이 다소 복잡하고, 소지품과 자료 이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국립 무용자료 센터는 그러한 벽을 완전히 허물기 위해 이용자들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단계별·유형별로 제공하고 있다.

먼저 입문자들을 위한 교육(Induction Sessions)의 경우 자료 이용을 위한 시스템, 시설 등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학부와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비롯한 연구자들을 위해서는 개인별 교육(one-to-one sessions with students) 실시하고 있는데 개인 논문이나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아카이브의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게 상담한다. 학과장이나 지도 교수들의 교과 프로그램이나 연구 프로젝트 기획과 구성을 위해서는 그룹별 교육(Group teaching)도 실시하고 있다. 가공되지 않은 1차 사료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셀 수 없이 많은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기관 역시 이러한 아카이브의 무한한 가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기록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심화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국립 무용 자료 센터는 또한 소장 자료를 바탕으로 무용 교육에 필요한 자료들을 출판하고 판매한다. 저작권 문제로 활용 및 서비스에 속을 앓고 있는 국내의 많은 기관과는 다르게, 입수 단계에서 저작권 문제가 정리되고 이는 적극적인 활용을 가능케 한다. 국가적으로 가치 있는 무용 예술 유산들이 무용 교육과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구 패키지(Resource Pack) 등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유통하고 있다. 특정 안무가나 작품에 대한 안무 동선, 작품 분석, 음악뿐만 아니라 관련 디자인, 사진, 참고 문헌, 교구 활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무용 지도자들이 올바른 경로로 대가를 지불하고 무용 교육 수업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센터의 소장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구, 교재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아카이브 자료를 접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을 이용하기 위해 센터 방문 및 잠재적 이용으로 연결된다. 1차 사료를 학습 도구로 활용한 교육 활동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다.

3. 로열발레스쿨의 온라인 타임라인

영국의 로열 발레 스쿨 아카이브(Royal Ballet School Archives)는 1926년 설립된 이래로 영국을 대표하는 무용예술교육기관 로열 발레 스쿨의 다양한 활동들과 관련한 발자취들을 기록하고 수집해 왔다. 학생 등록부, 지도서, 학교 보고서, 안내서, 교내외 공연 관련 기록들부터 영국 발레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록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술가 개인 또는 단체의 기록물을 비롯하여 도서, 정기간행물, 학술지, 프로그램, 언론 보도 자료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컬렉션으로는 로열 발레 스쿨과 로열 발레단의 설립자 니네트 드 발루아(Ninette de Valois)와 관련도니 기록, 카마고 발레 협회(Camargo Ballet Society)와 관련된 기록, 발레 지도자 베라 볼코바(Vera Volkova)와 그의 제자들인 영국 무용가 마고트 폰테인(Martgot Fonteyn)과 덴마크 무용가 에릭 브룬(Eric Bruhn), 러시아 무용가 루돌프 누레예프(Rudolf Nureyev) 등의 기록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로열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기관과 자료 수집과 보존에 대해 끊임없이 협력하고 공유했기 때문에 더욱 다채롭고 풍요로운 컬렉션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무용예술교육 기관으로써 활동한 뿐만 아니라 영국의 발레사에 의미 있는 기록들을 소장하고 있는 로열 발레

스쿨의 대표적인 교육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온라인 타임라인이다. 설립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로열 발레 스쿨의 탄생 이후 현재까지의 발자취뿐만 아니라 영국의 국립 발레단, 로열 발레단과 버밍엄 로열 발레단의 설립과 이후 주요 활동 등을 포함한 영국 발레사의 굴곡을 타임라인을 통해 정리하였다.



그림 1. 로열발레스쿨 타임라인

타임라인은 위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발레사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 화 자료들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 수는 약 7,700여점에 달하며 프로젝트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고 있다. 이는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연결된 하나의 맥락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나의 맥락에 연결된 각각의 소장 자료를 클릭하면 각 자료에 대한 전문 자료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이용자로 하여금 쉽고 재미있게 영국의 발레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영국의 발레사 속에서 로열 발레 스쿨의 정체성, 기능과 역할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국 로열 발레스쿨의 타임라인의 경우 특히 역사적 사고력 중에서도 연대기 파악력을 중점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 타임라인이 제공하는 연대순 사료와 전문 정보를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대적 구분, 연표 이해, 연도의 계산, 시간의 연속성에 따른 변화와 발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김한중 등, 2005). 이러한 기록들은 아카이브의 운영 인력과 실제 학교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협력하여 만들어 낸 것이다.

로열 발레 스쿨은 자칫 실기 중심의 교육 제도에만 국한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아카이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아카이브 역시 단순히 소장 자료를 열람의 형태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콘텐츠로 개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 할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한 것이다.

IV. 국내 공연예술아카이브 교육 콘텐츠 개발 현황과 문제점

영국과는 다르게 국내의 경우 무용 아카이브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의 사례뿐만 아니라 무용 전문 아카이브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천홍 선생님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 국내 춤 관련 자료 아카이브이자 연구 기관인 한국춤문화자료원과 월간「춤」발행인 조동화가 근현대 무용자료를 기증하면서 설립된 연극재단 등 민간 기관의 경우 전문 자료를 상당수 소장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들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과 운영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무용 아카이브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없고, 공연예술 분야로 포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거나, 무용가나 무용단의 아카이브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어 영국의 사례와 이들을 비교하여 종합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기관은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인 국립국악원, 아르코예술기록원, 국립무형유산원 등이다.

1. '수집과 보존'에 밀리는 '활용'

국내 많은 공연예술아카이브 또는 유사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아카이브를 구축해왔다. 기증과 이관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존 관리 하였고, 이용 서비스를 위해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디지털화, DB구축 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하지만 정량적인 성과만을 중시하는 환경으로 인해 최대한 빨리 많은 양의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나타내기 위해 디지털 자료 목록과 최소한의 기술 정보만을 업로드 하였다. 등록이나 디지털화 수량의 확보에 집중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기록 간의 관계, 기록에 대한 전문 지식, 전문가 평가 등 학문적 담론이나 의식을 이끌 만한 대한 내용은 기술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도자와 학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신선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자료를 소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서비스 내용과 제공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부재했다. 여전히 수집과 보존에 치우친 업무는 깊은 역사와 노력이 요구되는 '아카이브'의 구축에 착수한지 오래 지나지 않았고, 우리 사회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활용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집과 보존 업무에 치우쳐 있는 현실은 국내 공연예술아카이브의 조직체계와 전문 인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국립국악원 국악 아카이브와 같은 국내의 공연예술아카이브 또는 유사기관들의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소장 자료를 교육 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이것이 바탕이 되는 조사·연구에 대한 업무분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문 인력과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수집과 보존'에 무게를 두고 '활용'의 기능과 역할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황이었다. 교육 운영 및 개발 등 활용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는 전문 학예연구사 등의 직군은 찾아보기 힘들며, 사업종류나 배정 예산의 경우에도 개발 비용에 맡 그대로 '장기적인 투자'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었다. 아카이브 기반 교육 개발, 출판 기획 등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도 부서도 존재하지 않았고, 민간단체는 운영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 1~2개의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 콘텐츠 서비스는 기대조차 할 수 없다.

하지만 1인 아키비스트로 운영되는 영국의 램버트 댄스 아카이브와 비교한다 해도 인력이나 예산 문제만으로 원인을 돌리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시급한 현실이다. 2015년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램버트 댄스 아카이브의 아키비스트는 "램버트 댄스 아카이브의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활용과 홍보는 필수적이다. 영국의 복권기금과 예술인이나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을 통해 운영되는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무용단 운영진과 단원들의 다양한 예술 활동에 있어 아카이브는 필수적인 존재라고 여긴다.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카이브에 대한 기관과 사회적인 인식이 다르고, 아키비스트 역시 소장 자료를 활용한 교육 등의 대외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다. 대외 활동을 통해 아카이브의 가치를 증명함으로써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귀중한 자료를 기증할 수 있는 고객을 끌어들이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와 정부에만 의지하는 국내 아카이브와는 예산 확보와 운영 방식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립 기관을 중심으로 구축된 국내의 공연예술아카이브 또는 유사기관들의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상황은 결국 교육 기관과의 소통과 공유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교육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 과정에 대한 분석, 지도자와 학습자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가기록원이나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소장 기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비교적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관에서도 교육 현장과 밀접하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발을 위한 인적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은 필수적일 것이다(김술, 2012). 교육이라는 활동을 통해 대외적인 서비스 업무를 확장하고 이를 위해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이 과정에 있어 지속적으로 교육기관의 지도자들과 소통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수많은 자료들을 직접 열어보고 만져볼 수는 없지만 전시를 통해 감상이 가능한 박물관, 서고에 놓인 수많은 책들을 직접 살펴보고 열람과 대여가 가능한 도서관처럼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들과는 다르게 아카이브는 그것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아카이브의 소장 자료는 유일본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최선의 보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비교적 까다로운 통제 하에서 자료를 이용하게 된다. 게다가 하나의 기록 그 자체보다는 기록군(records groups), 컬렉션(collections) 단위로 자료에 접근하여 기록간의 관계 속에서 맥락 정보를 읽어내는데 그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고유한 특성을 가진 아카이브는 여전히 생소한 개념으로 최근에서야 사회·문화적으로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 확장과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와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 많은 공연예술아카이브 또는 유사 기관들은 이용자들에게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용 안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도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다. 아카이브를 방문해 보면 A4 1장이 채 되지 않는 분량에 해당하는 이용 안내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하고 있거나, 그 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다. 공연예술기록의 경우 기관이나 단체의 활동과 등록 및 관리 현황이 매우 상이하고, 매체의 종류 역시 매우 다양하다. 또한 공연예술 저작권법이 복잡하여 열람과 복사가 매우 까다롭고, 물리적으로는 훼손과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용자 교육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영국의 국립 무용 자료 센터가 제공하는 단계별·유형별 이용자 교육이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연구자 및 창작자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심화 연구와 창작을 위한 아카이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제공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히 해당 기관과 소속 아키비스트의 일방적인 자료 서비스 제공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키비스트의 소장 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가치 발굴을 바탕으로 이용자와의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심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기관의 인력이나 예산 등의 상황으로 상시 운영이 어렵다 하더라도 매뉴얼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연령이나 학습 수준, 그룹 규모, 이용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에 아키비스트들은 적극 참여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얘기했듯 기록화 사업을 실시하여 양질의 기록을 생산·수집하고도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거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은 이용자로 하여금 자료의 활용을 고무하여 기록의 가치 확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3.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창작의 권리와 침해되는 국민의 알권리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아카이브가 활용되기 위해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공연예술의 저작권 문제이다. 그 체

계가 매우 복잡하고 모호하여 상당 부분 권리의 소재와 적용 범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기록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다시 말해 명백하게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공연예술자료의 경우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가 불가하여 아카이브의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목적을 위한 활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심지어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이 주관하여 제작된 창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창작자들은 공개를 꺼리고, 이에 국민들은 관련 기록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연예술은 다양한 장르와 요소가 결합된 종합예술이다. 안무, 대본, 음악, 의상, 조명, 소품 등 모든 요소들이 창작물이고 그것이 모여 하나의 작품이 된다. 또한 기획에서부터 실연, 유통의 단계에 관계된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또한 공연예술을 법정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입장도 일관된 법적 기준과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김정완, 2015). 무엇보다 공연예술기록의 적극적인 활용을 막고 있는 것은 공연 자체에 대한 저작권과는 구별되어 적용되어 더욱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완성된 작품 그 자체에 대한 기록 영상과 작품을 창작하며 생산된 디자인이나 대본과 같은 기록들은 별개의 저작권법이 적용되는데, 실제로 많은 문화예술기관들은 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법적 권리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채 작품의 완성과 흥행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저작권 해결에 있어 높은 장벽에 부딪혀 여전히 제한된 열람 및 복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전시·교육·홍보 등 기관의 활동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자료만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 저작권법 자체가 공연 작품의 구성 요소별 적용 기준과 범위가 구체화되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기록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법 분야 전문가를 통한 자문과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을 받는다 해도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경우가 많다. 과거 창작물에 대한 권리에 대한 개념이 부재했고, 결합 저작물로서 작품에 대한 저작권리가 합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단순 열람이나 복사조차도 저작권법에 의해 매우 제한적으로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김도연, 2019). 이와 같은 상황은 교구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구체적이고 투명한 저작권법의 수정과 보완은 공연예술기록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V. 결 론

캐플러는 무용은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도 우리 사회의 잠재적인 체계와 결과물을 함께 반영하고 있는 지적 유산이라고 하였다(Kaeppler, 2008). 이는 오로지 무용에만 국한하여 적용되지 않고 모든 공연예술에 해당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인간의 삶의 양식과 희노애락을 녹여내는 것이 바로 공연예술이다. 즉, 이러한 특성을 가진 공연예술의 기록은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물리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삶의 모습과 환경을 포괄한 총체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교수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유미희, 2008). 이와 같이 높은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공연예술기록을 재가공해 활용할 때 공연예술에만 국한되지 않는 인간의 문화와 예술, 역사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와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연예술아카이브 또는 유사기관들은 수집과 보존 업무에 치우친 조직체계와 전문 인력, 조사와 연구 활동 부재, 교육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 부재, 공연예술기록의 적극 활용을 막는 복잡한 저작권의 문제로 기록의 가치를 확장하고, 기관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를 도외시키고 있었다.

국내 기관들은 지난 10여 년간 수집해온 소장 자료들을 디지털화하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통해 원활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달려왔다. 하지만 정량적인 성과 중심의 평가는 전문 자료 및 정보 제공 기관으로써 질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예술자료원, 국립무형유산원,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등의 온라인 아카이브를 살펴보면 디지털 자료의 업로드와 함께 기본적인 자료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는 이와 같은 기관들이 변화를 맞이해야 할 시점이다. 소장 자료의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신선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아카이브의 교육활동은 국민들에게 공공재의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지원 활동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아카이브 교육 콘텐츠 개발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영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용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 사례를 알아보았고 이와 비교하여 국내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신선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접목된 전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집과 보존에 치우친 업무 분장 보다는 소장 자료의 가치를 확장시키고, 아카이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활용 업무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사·연구 기능을 바탕으로 교육 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소장 자료의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과 조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카이브의 활용은 우리 사회에서 그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집과 보존보다는 활용으로써 업무와 환경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교육 콘텐츠 개발은 지도자와 학습자에 의한 적극적인 기록 활용을 이끌 수 있다. 기록을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교구 제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은 교육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바탕이 될 것이고 이는 더욱 새롭고 신선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아카이브의 홍보를 비롯해 아웃리치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데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관계되는 문화예술기관까지도 협업을 통해 소장 자료와 정보에 대해 고유하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한희정, 육해인, 오유진, 김용, 2014).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개발해야 한다. 다소 어렵고 불편하게 여겨지는 아카이브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세한 이용 매뉴얼과 규정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쉽고 편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연령별, 수준별, 그룹별, 이용목적별 등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유일본을 열람할 수 있는 아카이브의 특성을 반영하여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기록에 접근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공연예술의 저작권이 복잡한 만큼 이용 범위와 방법에 대해 친절하게 소개해야 한다. 이용자의 지식 배경과 수준, 이용 목적 등에 맞게 기초부터 심화 단계의 이용 교육을 실시하고 아키비스트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인력과 예산, 공간 등의 제한으로 상시 운영이 어렵다 하더라도 체계적인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제작해 두고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교육 콘텐츠 개발환경을 개선하는데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바로 저작권 문제일 것이다. 공연 작품의 구성 요소별 구체화된 저작권법의 적용 기준과 범위가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다양하게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게 기관들과 관련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와 움직임이 일어날 때 기록의 활용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고, 가치가 확산될 것이다. 놀랍고 신선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교육 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기반이 되고, 현대사회의 환경에 발맞춰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의 접목도 부가적으로 제안해본다. 여러 세대에 걸쳐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오랜 시간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실감나고 생동감 있는 가상현실이나 공유와 소통의 장인 어플리케이션이나 SNS는 콘텐츠 개발은 신선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살아있는 공연예술 교육 콘텐츠를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무용자료센터 <https://www.surrey.ac.uk/national-resource-centre-dance>
- 김도연(2019). 공연예술 영상기록의 현황과 과제: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을 중심으로. 기록과 정보·문화연구, 9, 137-162.
- 김상신(2016). 켈킨슨과 셀렌버그의 기록학 이론 비교 연구. 기록학연구, 50, 61-95.
- 김슬(2012).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의 초등교육 활용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59-79.
- 김정완(2015). 공연예술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고찰. 법학논고, 49, 596-631
- 김한중. 이영효. 최상훈 (2005).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서울: 책과 함께.
- 람버트 댄스 아카이브 <https://www.rambert.org.uk/explore/rambert-archive/>
- 로열발레스쿨 타임라인 <https://www.royalballschool.org.uk/discover/history/ballet-history-timeline/>
- 로열오페라하우스 컬렉션 <https://www.roh.org.uk/about/roh-collections>
- 박상애(2014). 미술관 아카이브와 교육. 박물관교육연구, 11, 11-31
- 박혜영(2017). 농악문화유산으로서 물질·비물질 자료의 활용가능성 타진. 실천민속학연구, 29, 239-274.
- 서혜경(2010). 국가기록원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 양호환(2001).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서울: 삼지원.
- 오선화(2017). 박물관교육 및 전시 아카이브의 현황과 활용방안. 박물관교육연구, 18, 77-108.
- 유미희(2008). 무용교수매체로서의 국내예술자료관의 현황과 활용가능성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15, 33-59.
- 이호신(2013). 공연예술기록의 저작권 문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1), 249-268.
- 정은영, 최현주(2010).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무용교육의 방향. 한국체육철학회지, 18(1), 269-284.
- 한희정, 육혜인, 오유진, 김용(2014). 문화유산기관의 협업을 통한 교육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학회지, 14(2), 31-60.
- Adrienne L. Kaeppler. Capturing Dance: A Meditation on Imprisonment.(2008) 춤유산저장과 세계 춤아카이브의 현황. 제4회 한국무용기록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p3-15.
- Jenkinson H.(1937), *A Manual of Archive Administration rev. 2nd. ed*, London:Percy Lund, Humphries & Ltd.
- Schellenberg, T. S.(1956), *Modern Archives: Principle and Techniques*, Melbourne, F. W. Cheshir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BSTRACT

The Study on the possibilities of the developmental environment for educational contents in performing arts archives

Doyeon Kim National Theatre of Korea

This study encourages to development educational contents by using records preserved at performing arts archives as soon as possible. To conclude the result, this study explored the examples of dance archives and educational contents in England and uncovered several complex issues encountered by national performing arts archives. In order to make diverse education programmes fully based on performing arts records, firstly, korean art archives need to consciously move from 'collecting and preserving' to 'utilising' in organisational system and work process, as well as keep networks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related organisations. This will enable performing arts archives to communicate and cooperate, and reflect feedback from them and consistently develop. In addition, archives should provide programmes and manuals for users to utilise archives. In terms of copyright, performing arts archives are being in trouble. Records are very fragile as performing arts archives include different kinds of medium. This is the reason why performing arts archives need to have educational system and manuals for users. Most of all, copyright have to be solved and managed for people to utilise records related to performing arts as mush as possible. Without positive changes in copyright of performing arts, it is very hard to find solutions and probabilities to develop educational contents. Studies on materials of performing arts professionally and modern technologies such as AR·VR or AI make educational contents more fruitful and colorful.

Key words : performing arts, performing arts archives, performing arts records, performing arts materials, dance archives, dance records, educational contents, educational programmes

논문투고일: 2020. 02. 28

논문심사일: 2020. 04. 09

심사완료일: 2020. 04. 20

* A researcher in National Theatre of Korea and a lecturer in HUFS,
who studied archival science in PhD course of HUFS and finished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MA course of UCL